

누가 피웠을까

옛 도청 앞 분수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10월 23일까지 '릴레이 아트 프로젝트-거시기 하시죠?' 전

최정화·이매리·정운학·김주연·마C·손봉채·박유복·최옥수씨 참여

1980년 5월의 작품을 고스란히 간직한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인근에서 최근 수상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분수대에 너비 10m, 높이 7m의 대형 꽃이 활짝 피더니, 17일에는 키가 2m나 되는 교통 경찰 7명이 아시아 문화마루(콘스트랄레 광주) 건물 옥상에 자리를 잡았다. 또 이 건물에는 '행복한'이라는 대형 글귀가 새겨졌고, 황소만큼 큰 빨간 구두 한 짝이 놓여졌다.

꽃은 지난 2005년 베尼斯비엔날레 때 한국관을 빨간 플라스틱 소리로 장식했던 최정화씨의 설치작품. 바람에 흔들리면 난 듯 꽂봉오리를 움직이는 이 작품의 제목은 '숨 쉬는 꽃'. 육중한 균육과 큰 키의 경찰들은 최씨의 또 다른 작품 '퍼니 게임'으로 아시아문화마루 옥상에 7점,



최정화 작 '퍼니 게임'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문화마루, 홍보관 통합 운영

아시아문화중심도시홍보관(아하 홍보관)이 아시아문화마루에 새동지를 틀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그동안 이원화됐던 아시아문화마루와 홍보관을 통합 운영하기로 하고, 19일 아시아문화마루에서 홍보관의 문을 열었다.

홍보관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국립

내부에 1점 설치됐다. 건물 외벽의 대형 글씨는 마C(미문호)의 작품 '행복한', 대형 구두는 이매리 'shoe'다.

광주에서 작가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작품을 계속 설치해 나가는 이색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19일~10월 23일까지 동구 금남로 아시아문화마루에서 '글로벌아티스트 릴레이 아트 프로젝트-거시기 하시죠?' 전을 연다. 전시 주제인 '거시기는' 말로 규정할 순 없지만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그 무엇을 뜻한다.

전시 전시에는 최정화·이매리·정운학·김주연·마C·손봉채·박유복·최옥수·권용주·백현주·오승열씨 등이 참여한다.

전시 개막에 맞춰 최씨와 이매리, 마C가 먼저 작품을 선보였고 다른 작가들은 시간을 두고 잇따라 작품을 설치하게 된다. 최옥수씨는 차범석, 오경규 등 전라도 예술가 150명의 인물 사진을 선보이고, 정운학씨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책과 옷 연작을 전시한다.

모든 작품이 설치되는 9월 2일에는 부대 행사도 펼쳐진다. 인사동 쪽지의 아트리얼터 안데스가 시민 모집을 모집해 재활용 옷을 선보이는 '아심 찬 패션쇼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또 국내 1세대 마이미스트 유진규와 재즈피아니스트 김진우의 합동 공연, 지역 디제이가 참여하는 음악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전시 폐막식에서는 극단 '다페르튜토 스튜디오'와 전통 국악 앙상블 '시나위'의 공연 등도 곁들여지고 모든 전시 과정은 책으로 남긴다. /오픈기자 kroh@kwangju.co.kr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현장과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창조원, 아시아문화정보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등 5개원에 대한 홍보 영상물이 설치됐다.

또 터치스크린으로 '한국·아세안 전통 오페스트라'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등 관련 사업도 볼 수 있다. /오픈기자 kroh@kwangju.co.kr

누가 벗어났을까

콘스트랄레 광장에



이매리 작 'shoe'

아이와 함께 '피노키오' 만나러 가요

송승환 제작 어린이 뮤지컬... 23~24일 5·18 기념문화관

대박 문화 상품 '난타'의 송승환이 제작한 어린이 뮤지컬 '피노키오'가 광주에서 공연된다. 23일(오전 11시·오후 2시·5시), 24일(오후 2시·5시) 5·18 기념문화관.

어린이들에게 잘 알려진 동화를 원작으로 한 '피노키오'는 '어린이 날짜', '오즈의 마법사' 등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작품을 만들 어온 송씨가 3년만에 내놓은 신작으로 서울 공연에서 3만여명의 관객을 모으며 화제를 모았다.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가 벌이는 모험을 재미있게 그린 '피노키오'는 와이드 영상과 특수효과로 그려내 신비한 모험의 세계가 인상적이다. 특히 하이라이트 장면인 피노키오의 코가 길어지는 모습은 아이들이 실제 자신의 코가 길어진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또 튜브 공을 굴려 객석을 찾아가는 등 관객 참여형 뮤지컬이라는 점도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며 비발디, 모차르트 곡 등 클래식 음악과 나무 인형 피노키오와 어우러진 리듬 장단과 세계 악기를 접목 시킨 음악은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



또 튜브 공을 굴려 객석을 찾아가는 등 관객 참여형 뮤지컬이라는 점도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며 비발디, 모차르트 곡 등 클래식 음악과 나무 인형 피노키오와 어우러진 리듬 장단과 세계 악기를 접목 시킨 음악은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

24개월 이상 관람 가능. 티켓 가격 4만원·3만원. 문의 1600-668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자연과 함께 1박 2일 '섬진강 문학학교'

광주·전남작가회의, 23~24일 섬진강 일대

자연과 함께 벚하며 문학의 꿈을 키우는 여름문학학교가 곡성 섬진강변에서 열린다.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김경윤)는 오는 23~24일 1박 2일간 '제13회 섬진강여름문학학교'를 섬진강 일대와 곡성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강과 별과 사랑노래'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여름문학학교는 문학특강, 작가와의 만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첫날 강연장에는 '투구꽃' 등의 시집을 낸 최두석(한신대 문창과 교수)이 초청돼 자신의 삶과 문학세계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어 댄스 퍼포먼스, 김성범과 노래깨비

아이들 공연 등으로 꾸며진 한여름밤의 꿈 콘서트도 펼쳐진다.

둘째날인 24일에는 시집 '십만 년의 사랑'을 낸 정유천 시인이 만나며 이인범·김미승·장정희·신석현·은미희씨 등 작가와 함께하는 좋은 글쓰기를 배워보는 시간도 준비됐다.

이외에도 백일장을 열 계획이며 섬진강 기차마을, 정미공원, 조태일시문학관 등을 돌려보고 도예와 야생화를 체험해 보는 문화 즐기기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가비가는 3만원(곡성군 청소년은 무료)이다. 문의 062-523-7830. /김대성기자 bigkim@

내일 무각사서 '문화공간 로터스 작가를 만나다' 행사

이달엔 정호승 시인과 함께 합니다

'그리운 부석사' '슬픔이 기쁨에게' 등 단호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한 시와 산문으로 감동을 전하고 있는 정호승(61·사진) 시인이 광주를 찾아 독자를 만난다.

광주 상무지구 무각사(주지 청학스님)는 21일 오후 7시 무각사 문화관에서 '문화공간 로터스 작가를 만나다' 7월 행사에 정 시인을 초대했다.

최근 공초문학상을 수상한 정 시인은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문단활



동을 시작했으며 시집 '슬픔이 기쁨에게' '새벽 편지' '별들은 따뜻하다' '밥값',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한마다', 동화집 '돛난 사과의 꿈' 등 다수를 펴냈다. 소월시문학상, 정지운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383-010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011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돋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h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료가 입금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하시게 됩니다.

태양광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주택 사업이란?

일반주택,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국민적 이익을 확대하여 관련 기업의 민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태양광 시장 성장을 확대를 유도하여, 기술발전을 통한 중장기 수출전략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조 50% 확정

태양광시스템이 적용된 주택의 특징

태양광시스템으로 발전된 전력을 주택전기로 사용되고 남는 전기는 한전으로 연결됩니다. 여전히 사용되는 전기계비를 거꾸로 돌림으로서 전기료를 약 80~90% 절약시켜 줍니다. 비가 오거나 혹은 날씨에도 태양광은 소수전력이 생산되지만 태양광이 사용보다 적으면 저동으로 한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기준청구요금(시용전력량:KWh)

설치사 청구요금	절감 요금
8만원(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10만원(약 490KWh일 때)	약 3,600원
12만원(약 500KWh일 때)	약 4,800원
15만원(약 540KWh일 때)	약 6,000원
20만원(약 610KWh일 때)	약 8,000원
25만원(약 680KWh일 때)	약 10,000원
30만원(약 740KWh일 때)	약 12,000원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보급 상담문의 ☎ 062-512-1180 / H.P 011-659-7001

비새는 아파트옥상·슬라브주택·밀라·공장의 회소식 국내최초 특히 제10-0986204호 슬라브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슬라브지붕누수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로가 최소 30% 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이상 간다.
5. 장독대, 빨래건조대로도 사용할수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것보다 3~4배 더 잘마른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 완벽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리도 다시 뚫어서 물빼짐이 원활하다.



공장직영/완벽한시공/확실한A/S 보장, 전국 최다 시공팀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단 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방수시스템!
한농칼라강판지붕개량 061) 335-8842, 010-4024-4005